



“최경주, 마스터스 깜짝 놀라게 할 선수”

PGA 공식사이트 히메네스·오버턴 등 10인에 선정
‘별들의 전쟁’ 우승 후보 미켈슨·앤서니 김 등 꼽아

‘탱크’ 최경주(41·SK텔레콤)가 ‘명인 열전’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앞두고 ‘이번 대회에서 놀라게 할 선수’ 10인에 이름을 올렸다.

PGA 투어 공식사이트는 6일(이하 한국시간) 이번 마스터스 우승 후보 10명을 제시하면서 이에 들지 못한 선수 중 ‘깜짝 활약’을 펼칠 것 같은 선수도 함께 뽑았다.

PGA 전문가들은 필 미켈슨을 1순위로 선택했고, 닐 와트니와 타이거 우즈, 그레이 맥도웰, 버바 왓슨을 차례로 뽑았다.

한편 최경주(41·SK텔레콤) 등 코리안 브라더스는 이날 집중적인 연습을 하며 샷 각을 가다듬었다.

최경주는 6일 아마추어 선수로 이 대회에 초청받은 재미동포 라이언 김(21·김준민)과 9홀 연습라운딩을 했다.

조지아주에는 4일 밤부터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 불어 5명이 사망하고, 15만여 가구가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연습라운딩 시간이 2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지만, 최경주는 강풍 속에서 연습을 강행했다.

최경주는 라운딩을 마친 뒤 “오거스타 골프클럽은 한국의 한양컨트리 클럽을 연상시킬 정도로 코스에 예쁘고, 갤러리들의 반응도 뜨거워 맘에 든다”면서 “바람이 많이 불어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불이 떨어지 뒤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경주는 6일 아마추어 선수로 이 대회에 초청받은 재미동포 라이언 김(21·김준민)과 9홀 연습라운딩을 했다.

조지아주에는 4일 밤부터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 불어 5명이 사망하고, 15만여 가구가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연습라운딩 시간이 2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지만, 최경주는 강풍 속에서 연습을 강행했다.

최경주는 라운딩을 마친 뒤 “오거스타 골프클럽은 한국의 한양컨트리 클럽을 연상시킬 정도로 코스에 예쁘고, 갤러리들의 반응도 뜨거워 맘에 든다”면서 “바람이 많이 불어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불이 떨어지 뒤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경주는 6일 아마추어 선수로 이 대회에 초청받은 재미동포 라이언 김(21·김준민)과 9홀 연습라운딩을 했다.

조지아주에는 4일 밤부터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 불어 5명이 사망하고, 15만여 가구가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연습라운딩 시간이 2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지만, 최경주는 강풍 속에서 연습을 강행했다.



〈최경주〉

〈앤서니 김〉

〈양용은〉

“초반 3.4번 홀에서 잘 게임을 풀어가야 후반전에서 욕심을 안 내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경기 초반에 바짝 타수를 즐기는 전략을 펼칠 계획임을 시사했다.

“바람의 아들” 양용은(39)도 이날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서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와 함께 연습라운딩을 하며 코스를 점검했다.

마스터스에 네 번째 출전하는 양용은은

“후반 9홀을 돌면서 코스를 점검하는 데 집중했고, 특히 칩샷과 퍼팅 등 소트게임 연습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오늘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거리 조절을 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자년 일본프로골프 상급왕인 김경태는 “코스가 생각보다 길어서 톨 아이언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양 선배가 그린의 스피드도 매일 바꿔 정도라고 조언해 주려니 그걸 공략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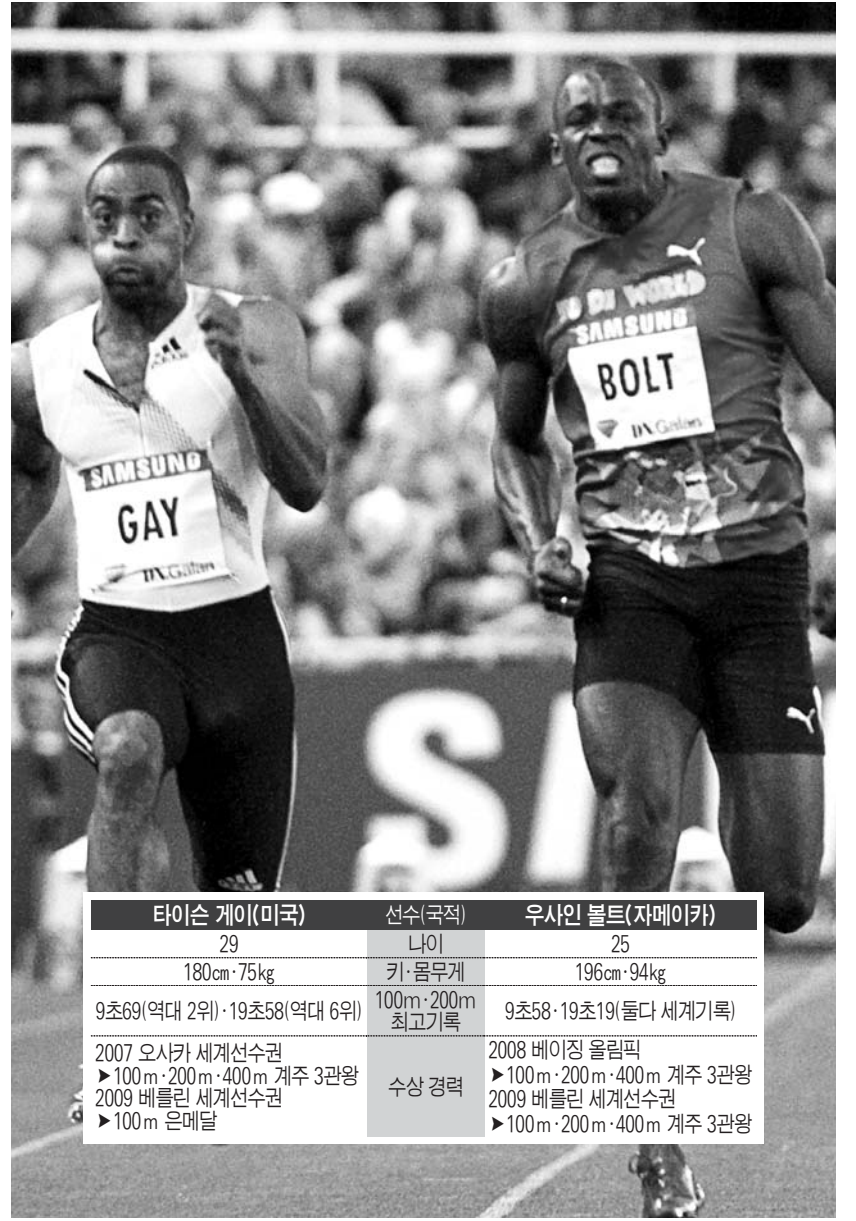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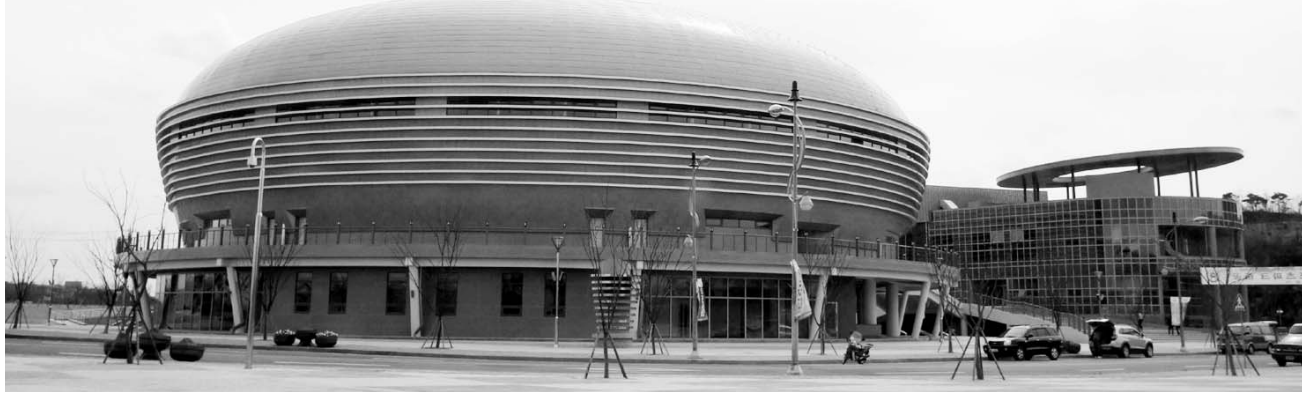
Table with 3 columns: 타이슨 게이(미국), 선수(국적), 우사인 볼트(자메이카). Includes stats like 180cm-75kg, 나이, 키, 몸무게, 100m-200m 최고기록, 2007 오사카 세계선수권, 2008 베이징 올림픽, 2009 베를린 세계선수권, 2010 오사카 세계선수권, 2011 대륙대항구 월드컵.

볼트·게이 ‘인간탄환’ 레이스
대구서 8월 세기의 대결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25·자메이카)가 지난해 라이벌인 타이슨 게이(29·미국)에게 패한 뒤 생환을 받고 와신상담에 들어갔다. 볼트는 6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저녁 늦게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피하고 패스트푸드 대신 견과식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볼트는 또 전담 요리를 고용했다고 덧붙였다. 육상 남자 100m(9초58)와 200m(19초19) 세계기록을 보유한 볼트는 레이스를 치르기 전 치킨 너깃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9초97에 그쳐 9초84를 찍은 게이에게 우승을 내준 뒤 위기감을 느꼈고 이후 나쁜 습관 뜯어고치기 작업에 몰입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계주 세 종목에 활황을 보인 200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3관왕을

위용 드러낸 나주스포츠파크

동형 다목적 체육관 어제 준공
22일 전담체전 주경기장 활용



제50회 전남체육대회 가 치러질 나주종합스포츠파크가 문을 열었다. 6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내 다목적체육관에서 임성훈 나주시장과 김덕중 시의회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준공식이 열렸다. 사업비 400여억원을 들여 조성된 종합운동장은 오는 22일 개막하는 전남체전의 주경기장으로 쓰이게 되며, 육상 400m 트랙 8레인과 보조경기장 1면 그리고 농구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25m 길이의 수영장 6레인과 생활체육관 270석, 체육단련 및 축제가 마련됐다. 핸드볼, 배구경기장으로 사용되는 다목적체육관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관람석과 기타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웨이트트레이닝센터는 지상 4층에 선수합숙소 37실, 웨이트트레이닝장을 갖추고 있다. 스포츠파크가 가동에 들어가면서 전남체전 준비도 본격화 됐다. 올해 전남체전은 오는 22일부터 25일

까지 4일간 나주에서 열리며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임원과 선수 등 6000여명이 참여, 18개 정시종목과 역도·바둑 등 시범종목 그리고 인라인롤러와 농구 등 전시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된다. 나주는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영산포 선창변에 6만6115㎡(2만여평)의 유채꽃밭을 조성했으며, 대회기간인 22~24일 ‘2011 영산포 흥어 축제’도 개최한다. /나주=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준부취재본부=최승철기자 srchoi@



경찰축구단 체전
광주대표로 출전

경찰축구단이 제92회 전국체전 광주대표로 출전한다. 광주시체육회 김흥식 상임부회장과 송창현 경찰대학장이 6일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장에서 경찰축구단의 광주시 연고 유지에 합의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 축구단은 오는 10월 경기도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광주시 남자일반부 대표로 출전한다. 경찰축구단은 지난 제89회 전국체전 전남대표로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각종 전국대회 및 R리그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Includes contact info (062-236-3400), company name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nd a grid of 12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